

작품 수는 줄어들었으나 경기, 강원, 제주 등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등산에 대한 주제가 많았으며,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이라는 주요 정체

성인 가사문학의 형식을 취한 작품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이번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앞장 서 우리 전통 문학양식을 계승한다는 점에 서 커다란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사문학은 어렵다는 편견 깨고 싶어”

스토리텔링 대상 수상소감

오세진(일산정발고 3)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사 문학에 한 걸음 다가 가게 되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과의 이별’은 정철의 속미인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제 주변에 가사 문학이라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 작품을 통해 가사 문학이 마냥 어렵기만 한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 작품을 읽어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 부문 대상

임과의 이별 오세진(일산정발고 3)

“정노을, 우리 헤어지자.”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을 뒤로하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일어나고, 혼자 남은 그는 고개를 떨궜다. 노을은 무작정 길을 가다 가장 친한 친구인 가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비아...”
“어? 무슨 일 있어?”
“... 흐흑”
“무슨 일인데? 아니다. 일단 만나자. 우리 맨날 가던 카페 알지? 거기로 와.”
울먹이는 목소리를 알아챈 가비는 노을을 만나러 근처 카페로 갔다. 들어가기 전 통유리에 비친 노을을 보니 대충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경쾌하게 울리는 종소리가 노을에게는 슬프게만 들렸고, 가비가 온 것도 모른 채 빈 허공만을 바라보았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가비가 노을을 흔들며 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뭔데. 나 왔으니까 말해봐.”
한참을 울먹이다 겨우 입을 뗀 노을은 천천히 얘기했다. 1년 전 정노을과 임훈은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났다. 첫눈에 노을에게 반한 훈은 그날 이후 계속 노을 곁을 맴돌았고, 노을도 그런 훈이 싫지만은 않았다. 훈의 구애 끝에 정식으로 만나기로 한 둘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짝으로 지냈다.
훈은 자신에게서 가장 특별한 여자가 노을이라 말했고, 노을은 훈의 진심을 느끼며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훈의 진심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반년이 지나자 노을을 조금씩 귀찮아했고, 노을도 그걸 느꼈다. 그럴 때면 노을은 가비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 상담을 했다.
“훈이가 요즘 날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 계속 생각해 봤

는데 이게 다 내 탓이야...”
“그게 왜 네 탓이야? 다 그 망할 임훈 탓이지.”
“내가 누굴 탓하겠어.... 그냥 운명이지 운명...”
운명이라며 훈의 변화를 애써 부정하던 노을은 여태까지 버텼었고, 결국 오늘 헤어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헤어진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니다. 고등학생 때도 이러한 이유로 한번 헤어지고,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 선언하며 지내다 훈을 만난 건데 또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다.
가비는 슬퍼하는 노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임훈은 다들 거라고 했던 게 바로 가비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가비아. 훈이 겨울에는 물론이고, 여름에도 감기에 잘 걸리는데 나 없으니까 챙겨 줄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내가 걔 자취방에 가서 챙겨주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누가 챙겨?”
헤어지고 나서도 훈이를 챙기는 노을의 모습에 가비는기가 막혔다.
한편으로는 노을이 너무 불쌍했다.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좀 봐주지, 노을이만큼 좋아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잘 챙겨주기라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
노을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 태양도 노을을 위로하는 듯 그녀의 이름처럼 붉은 노을을 보여주며 서서히 내려갔다. 오늘 일이 안타깝긴 하지만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하는 두

사람이기에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과제가 있는 가비는 먼저 집으로 가고, 홀로 남은 노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걷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좋았던 기억을 느끼고 싶어 그와 자주 가던 카페로 갔지만 문이 닫혀있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점은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함께했던 추억들이 카페와 음식점 마냥 하나, 둘 불이 꺼지는 느낌이다.
다행히도 그와 같이 갔던 한강은 그대로였고, 벤치에 자리를 잡은 노을은 조명이 비추는 물결을 보고 그와의 이별을 실감했다. 늘 그와 온기를 나누던 손은 한없이 차가워졌고, 어깨를 감싸던 그의 손이 없자 바람이 더욱 쌀쌀하게 느껴졌다.
유유히 지나가는 유람선을 보니 그와 한 약속이 떠올랐다.
“우리 만난 지 300일 되는 날엔 한강에서 유람선 타자~ 나 저거 타는 게 소원이야.”
“그래? 우리 노을이가 소원이라는 데 망연히 가야지.”
약속했던 300일 되는 날엔 훈이 중요한 선약이 있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래도 노을은 다음에 더 재밌게 보내면 된다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넘어갔다. 이대로 한강에 더 있다가는 계속 그 생각만 할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본사 주최 ‘제5회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 수상작

“스토리텔링의 이해를 좀더 키워야”

스토리텔링부문 심사평

임준성(광주여대 교수)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작품은 모두 11편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작년에 비해 상상력과 구성이 약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올해는 응모작 수가 급감했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의 폐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다. 예술적 감성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임을 학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글은 곧 자기표현이다. 글은 말에서 시작해서 생각이라는 단계를 거쳐 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 그리고 맛을 갖춘 ‘개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온 개성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통해 서언어의 예술세계인 문학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말에서 생각으로, 그리고 개성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틀 중의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허구의 세계인 소설과 다소 혼동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특정한 요소를 확장시켜

서 이야기를 짚고도 굵게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김덕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임진왜란’과 ‘장군’을 들 수 있다. 여느 인물과 다르게 임진왜란 당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미지를 새롭게 다른 이미지로 구성해 탈바꿈시키는 것이 곧 스토리텔링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스토리텔링의 바탕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제5회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 스토리텔링 부문 대상으로 오세진의 ‘임과의 이별’을 선정했다. 이 작품은 남녀의 이별을 소재로 하면서 끝부분에서 정철의 ‘속미인곡’의 콘텐츠를 도입하고 있어 스토리텔링 요소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최우수상으로는 전인보의 ‘산아래의 잠’과 김유진의 ‘무등산에서’를 선정했다. ‘산아래의 잠’은 1980년 5월 무등산 아래에서 자행된 5·18의 비극이 소재이다. 이로 인해 희생된 인



물이 남긴 영정 속 미소를 통해 화해와 치유를 지향하고 있는 구성이 돋보였다. ‘무등산에서’는 서울에서 광주로 전학 온 친구가 부적을 문제를 들고 있다. 친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라진 친구는 결국 무등산에서 찾았다. 갈 곳이 라고는 무등산밖에 없었다는 친구의 말에 적응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어 이야기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전승훈의 ‘개미’, 오나경의 ‘무등산 내음’, 하예린의 ‘무등산이 최고인 이유’를 선정했다. 세 작품 모두 백일장 취지에 맞게 무등산에서 소재를 착안해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되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탄탄한 구성이 되지 못한다. 소재가 되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자신만의 생각을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재구성 할 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광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이 스토리텔링의 응용문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훈이다.
헤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고 싶었던 훈이가 내 앞에 서 있다. 하루 사이에 야윈 훈이의 얼굴이 안타깝기만 하다.
너도 힘들었구나, 너랑 같이 갔던 카페는 문이 닫혀있었고, 네가 좋아하던 음식점은 공사 중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한강에서 우리가 한 약속이 생각이 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훈이를 울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훈이가 점점 멀어져 간다. 잡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렇게 잠에서 깼다.
다음날 노을은 뺨한 눈으로 강의실로 들어갔다.
그런 노을을 본 가비는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다. 노을은 한숨도 못 잤다는 질문에 대답 대신 그저 훈이의 뒤통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가비가 노을을 잡고 함께 의자에 앉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노을은 꿈에 훈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다. 가비는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였냐고 안타까워했다.
노을도 자신이 이 정도로 훈을 좋아하는 줄 몰랐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던 도중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가비는 이따가 다시 말하자고 얘기했다.
“잡담 그만하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사 문학인데요. 그중 정철의 속미인곡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속미인곡은 남녀, 남녀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리움과 애절함을 잘 표현한 작품이죠. 임을 그리워하는 율과 그를 위로하는 갑이죠.”
한가비, 정노을, 임훈 모두 속미인곡 수업에 집중했다.

전미 박스오피스 8위! 기독교 흥행 대작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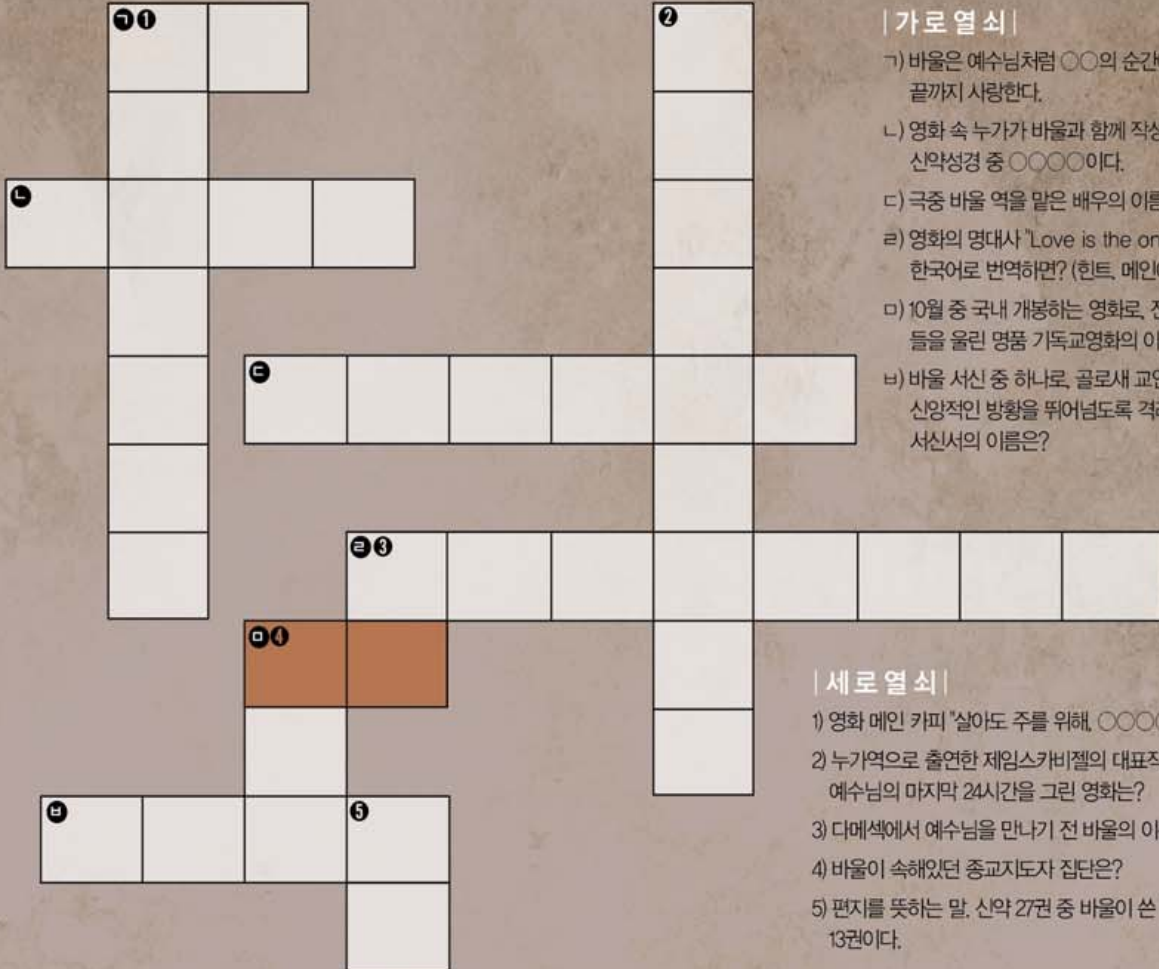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PAUL: APOSTLE OF CHRIST

수입/배급 CBS

10월, 전국 극장 대개봉

www.facebook.com/cbscinema 카카오톡 ID | CBS시네마
단체관람 신청 | ☎ 062. 376. 8500 (광주CBS 총무국)



[가로 열쇠]

- 바울은 예수님처럼 ○○의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한다.
- 영화 속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작성하는 글은 신약성경 중 ○○○○이다.
- 극중 바울 역을 맡은 배우의 이름은?
- 영화의 명대사 "Love is the only way"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힌트: 메인메이킹)
- 10월 중 국내 개봉하는 영화로, 전세계 교인들을 울린 명품 기독교영화의 이름은?
- 바울 서신 중 하나로,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적인 방향을 뛰어넘도록 격려하는 서신서의 이름은?

[세로 열쇠]

- 영화 메인 카피 "살아도 주를 위해, ○○○○○○○"
- 누가역으로 출연한 제임스카비젤의 대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그린 영화는?
-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은?
- 바울이 속해있던 종교지도자 집단은?
- 판자를 뜻하는 말. 신약 27권 중 바울이 쓴 ○○서는 13권이다.

영화 <바울>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지에서 예고편을 보시고, 퍼즐을 완성하여 10월 20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주소로 보내주세요.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4층 CBS시네마극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10월 24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